

# 연동갑 예비주자 현수막 잇달아 사라져

내년 지선 최대 격전지 평가...3명 이상 피해, 일부 경찰 수사 의뢰

내년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 예비 주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잇달아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후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 내 걸려 있던 예비 주자들의 현수막이 5개 이상 사라졌다. 현수막 무단 철거 피해를 본 이들만 3명 이상이다.

현수막 무단 철거 피해를 봤다는 한 예비 주자는 “높이를 2m 이상으로 높게

달았는데 그것 하나가 밤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일부러 도구를 준비해서 온 것이 아니라면 떼기 쉽지 않은 높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 주자는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범인을 잡아 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나선 다른 예비 주자는 “연말 인사 현수막 6개를 걸었는데, 그 중 4개가 사라졌다”며 “오라동 선거구 예비 주자와 같은 위치에 걸었던 현수막도 있었는데, 제 것만 사라

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는 출마의향을 밝힌 예비 주자가 6명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는 예비 주자들의 물밑 싸움이 치열한 곳으로, 작은 사건 하나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일보.com



월동무 수확하는 농민들 29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밭에서 농민들이 월동무를 수확하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samda일보.com

## 내년에도 공공심야약국 서비스 지속...의료취약지 6곳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에도 공공심야약국을 지속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다.

2012년 전국 최초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한 제주도는 내년에도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와 지역별 안배를 고

려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내년 공공심야약국은 한림읍 현재약국, 조천읍 영재약국, 구좌읍 세화약국 등 제주시 3곳과 중문동 국민약국, 대정읍 시계탑약국, 성산읍 태양약국 등 서귀포시 3곳 등 총 6곳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주 6일 이상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다. 다만 동(洞)지역은 오후 9시부터 다

음날 0시까지 운영한다.

제주도는 공공심야약국 이용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내년 4월쯤 추가 신청을 받아 1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 약국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samda일보.com

# ‘14명 사상’ 우도 교통사고 “급발진 의심 정황 확인 못해”

국과수, 감정 결과 경찰에 통보

지난달 24일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발생한 다수 인명사고 교통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차량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경찰에 “우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비롯해 차량의 기계적 결함 여부와 운전자 신발 밧창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정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결과,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고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

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 A씨를 다음 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제차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차량을 몰고 내린 직후 인파를 향해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운전자를 포함해 중경상을 입은 11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일보.com

## 2025년 한 해 사유지 꽃자왈 7.2ha 공유화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이사장 김범훈)은 2025년 한 해 동안 제주 동부·서부지역 사유지 꽃자왈 7만2486㎡(7.2ha)를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꽃자왈 매입에는 도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비롯한 도민과 기관·단체 등이 후원한 꽃자왈 공유화 기금 약 9억 9000만원이 사용됐다.

일부 토지주는 감정평가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해 매도하는 등 꽃자왈 공유화 운동 확산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번에 공유화한 꽃자왈 지역은 제주

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청수리 일대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꽃자왈에는 세계적으로도 보호 가치가 높은 제주고사리삼(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 군락을 이루는 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와 청수리 지역의 경우 한국 특산종인 제주백서향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개가시나무가 자생하는 곳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일보.com

### 마라도서 50대 바다에 빠져 숨져

29일 오후 1시48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자리덕방파제 인근에서 50대 A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A씨가 낚시 중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일보.com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064)757-1416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개별 용달**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전국이사
- 각종 소화물 운송 전문
- 폐기물 처리

제주96자 5426호

대표 김명철

제주시 동광로13길 17-4(일도2동)  
TEL.(064) 759-9393  
H.P 010-2698-3499

**PREVIEW**  
(주)프리뷰커뮤니케이션

010 3238 6965

66년 전통! 유능전문 향토기업

**한양상사**

사무용품 / 전산용품 / 문구용품 / 상패

한양상사는 제주 도민의 신뢰와 굳건한 믿음을 토대로 고품질 제품을 각 업체와 기관에 성실·신속하게 납품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한 차원 높은 서비스로 공급 하다는 원칙을 지키며 한발 앞선 서비스를 통해 전문업체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관덕로7길 4(일도1동)  
☎ 064)722-2011, 722-6693  
F. 064)726-2011